



우란분절 만배 정진 하는 '부산 반아원'

부산 반아원 불자들이 조상님에 대한 감사와 극락왕생의 기원을 담아 만배 정진을 하고 있다.

지극한 下心으로...

한 여름, 추적거리는 빗소리 속에 '지심귀명례'가 울려 퍼졌다. 법당에서 하염없이 절을 하는 불자들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흘렀다. 눈에서는 어머니를 구하러 지옥을 찾아간 목련존자의 간절함이 형형한 빛으로 쏟아져 나왔다. 입에서는 끊임없이 천불의 명호가 이어졌다. 간절함 그리고 의연한 원력의 기운이 법당을 타고 있었다.

백중을 맞아 조상님을 생각하며 만 배 정진을 하고 있는 법어사 해운대 반아원(주지 목종)의 불자 100여명은 지극한 마음의 근본, '하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팔랑을 공양을 한배 한배에 담아 부처님께 올리고 있었다.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서는 지극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절은 하심을 공부하고 지

극한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수행법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심을 배워 더욱 의미 있는 백중을 보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절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종 스님이 만 배 수행을 진행하는 이유다.

효의 실천과 가족의 화목을 강조한 목종 스님은 "살과 죽음은 한 선에 있는데 천도재의 중요성을 간파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효는 가족, 근본의 뿌리로 돌아가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만 배 정진 기도를 처음으로 제안했다는 안봉순(47·관음향) 보살은 "축비를 너무 쳐서 손바닥이 부르르하고 목도 쉬어 아프지만 환희심이 절로 나오고 함께 동참하는 반아원 도반들의 신심 덕분에 더욱 힘이 난다"며 "천도의 의미를 알고 기

도를 체험하며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지 스님과 도반들의 마음이 서로 뭉쳐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자랑했다.

기도에 함께 동참 중인 전정혜(55·견우심)보살은 "부모님을 직접 선택하고 태어난 우리들인데 자신들의 뿌리를 위해 얼마나 생각하고 노력해 왔는지 이번 기도 중에 돌아보고 깨닫게 되어 절을 하는 하루하루가 즐겁다"며 활짝웃음을 지어 보였다.

글=하성미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2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저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LED 인등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영가주름등 영가접등 영가공단등

* 사망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 법륜사 법당 남양주 영도암 인등 군산상주사 위패 청사초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